

탄소중립 · 그린뉴딜 등 3대 전략 선정

국립환경과학원, 9개 과제 진행...국민 체감할 수 있게 추진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을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과 9개 전략과제를 선정·진행한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을 맞아 탄소중립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통합물관리, 포용적인 환경서비스 제공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3대 전략으로 먼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선도연구를 추진한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관측망과 배출량 감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상 측정 장비와 항공기, 위성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관측망 구축으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나선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내의 제도과 기술 동향 등을 분석해 2030년 이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안을 마련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환경성 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전용 시험시설도 구축한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연구의 체계도 확립한다.

기후위기가 대기, 물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적인 기후위기 적응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20여 개 정부 및 민간기관과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연구를 추진한다.

환경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순환 정책연구를 통해 순환경제와 녹색산업 전환 지원에도 나선다. 페플라스틱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 평가를 수행하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탈플라스틱 사회로 이행방안을 모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첨단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미세먼지 첨단감시센터와 한국형 부지 경계 측정법(사업장 밀집지역 원격감시) 등 첨단 감시체계다.

빅데이터 기반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스마트 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항공기와 선박, 위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입체관측한다.

미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한 국제 검증팀과 분석



하는 등 국제협력도 내실화한다.

두번째 통합물관리 정착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4차산업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물순환, 수질, 수생태계 등 통합물관리 의사결정시스템 요소 기술과 인공지능, 항공영상,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불투수면 및 비점오염원 사별연구를 통한 통합유역관리 기반 기술이다.

세번째 세계적 수준의 환경시험·검사 역량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이 보유한 환경 측정분석 장비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개방형 환경표준 심의회 운영을 통해 민간의 국제표준 대응력을 향상

다.

올 4월 국가환경시료은행(바이오뱅크)을 완공해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장기간의 환경보건 연구에서 생체 시료를 안전하게 보관 및 활용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배출원 분류체계 구축, 분석법 개발 및 표준화 연구, 분포 실태 및 유해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감시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급증한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멸균 분쇄시설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실증기로 했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 설명회

환경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의견 수렴

환경부가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6일 서울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유통브를 통해 중계되는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기관(LCA·life-cycle assessment),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

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선진국과 글로벌 대기업이 전 과정 탄소배출량을 기반으로 수출기업, 납

품기업 등 공급사를 대상으로 규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배터리, 철강 등 수출규제 대상 산업 중심이다.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부터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 산정 관련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이상기후 현황과 대책 등 포함

3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 등의 수립이 포함돼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법을 바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 등이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서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담당 기관의 승인과 환경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하는 등의 여건 변화를 환경영향평가 규정

에 반영한 것이다.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폭염·폭우·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와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 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현황 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반도체 오염물 등 세척, 공업용수 초순수 생산 기술 100% 국산화



환경부가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 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초순수 등 물 산업 원천기술을 국산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물관리 정책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2025년까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 100%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실증 플랜트(2천400t/일)를 구축하고 핵심 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공정 운영 기술 및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

한 270명의 관련 전문 인력(학·석사)을 양성기로 했다.

2025년부터 초순수 일 5만톤을 생산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등 해외 초순수 시장 진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순수는 초미세회로로 구성된 반도체 표면에서 각종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공업용수다. 현재 일부 선진국만이 초순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용 초순수의 생산과 공급을 일본, 프랑스 등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개 품목을 육성, 미국·유럽 등 선진국물 시장 진출도 도모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기여하는 물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2040년까지 환경부 소관 전체 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국내 최대규모(41MW)인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설비를 완료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을 개시한 바 있다.

/정두수 기자 kienews@naver.com



www.kituramienenergy.co.kr



쾌적한 환경 귀뚜라미에너지가 지켜드립니다.

세계수준의 안전과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무결점 안전관리로 고객감동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문의 : 02) 2680-4700

귀뚜라미 energy
SINCE 1984